

2021 새해 새 설계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광산형 뉴딜 실현, 구민 행복도 향상”

면역·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걷기광산 프로젝트 확대
공기산업 육성 궤도 올릴 것



“광산형 행복뉴딜 사업을 통해 민선 7기 구정 목표인 ‘내 삶이 행복한 매력·활력·품격 광산’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 31일 광주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등 험한 고비를 넘고 넘어 맞는 올해도 위험은 여전하고, 과제는 많은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광산구는 이러한 난관에서도 시민의 행복을 지켜내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차근차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김 구정장은 “지난해는 잇따른 태풍, 최악의 폭염, 최악의 장마와 홍수, 그리고 코로나19까지 그동안 겪어 보지 못한 위험과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온 한해였다”면서 “올해를 ‘대 전환의 시기’로 정하고, 광산형 행복뉴딜로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구정장이 이날 밝힌 광산형 행복뉴딜은 크게 4가지로 압축된다.

김 구정장은 가장 먼저 과학적·혁신적 정책으로 시민의 행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조사한 시민행복도를 바탕으로 계층별 지역별 행복도를 향상시킬 방안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가족·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록 행복도가 높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하고, 취미나 취향을 중심으로 소통하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사업들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또 안전의 개념을 시민 건강 부문까지 확장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김 정장은 민선 7기 시민과 함께 생활 위험요소 6600여건을 개선해 광산구를 대한민국 대표 안전도시로 세운 경험을 언급하고, 시민 건강까지 안전 개념에 포괄해 살핀다는 복안이다. 대표사업은 면역력을 측정해 증진 처방을 제공하는 ‘시민면역클리닉센터’,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감기와 독감을 치료받을 수 있는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이다.

김 정장은 올해 대대적으로 전개할 ‘걷기광산 프로젝트’에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다.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효과적으로 건강과 면역력을 다질 수 있도록 동네에 걷기 코스를 개척하고, 동아리 지원과 걷기 지도자 양성도 병행하는 것이다. 그는 인구

20만 생활권 내에 자리한 풍영정전을 빛·휴식·건강의 무대로 정비해 걷기 운동의 메카로 삼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김 정장은 올해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잠재한 지역 경제의 싹틔움을 살리고, 공기산업을 궤도에 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역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힌 김 정장은 “‘사장님 다시 서기 프로젝트’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제도 교육과 멘토 연결, 창·취업 지원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정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기산업 육성 등을 비롯한 ‘지역발전전략사업 시범사업’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그는 “가성비 좋은 미세먼지 측정기와 미세먼지 자동 정화 버스승강장을 개발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고 있다”면서 “올해는 미세먼지 측정 정보 실시간 알림 시스템 구축, 에어가전 육성 복합지원센터 건립 등 본궤도에 오른 공기산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정장은 또 “광산형 행복뉴딜로 자원순환도시의 기반도 탄탄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자원순환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자원순환해설사 양성, 시민 교육·캠페인 전개 등과 함께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업사이클링 기업 육성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정장은 “우리는 이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전과 다른 세상은 더 나은 세계여야 한다”며 “우기에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며 심시일반으로 광산백신편드를 조성하고, 장독습지에 대한 학습과 토론으로 대한민국 최초 도심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이끌어낸 자랑스러운 광산시민과 함께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3년째 나눔 실천...고사리 손 성금 광주 선운초등학교(교장 강성순) 학생들이 지난 29일 어룡동주민센터에 기부금 30만원과 라면 800개를 기부했다. 선운초 학생들은 기부금 마련을 위해 ‘사랑의 라면트리’ 및 ‘선운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등 2019년부터 3년째 나눔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주시 무사고 법인택시기사 지원금 대상 확대

10년 이상 장기근속에서 7년으로

광주시는 “무사고 장기근속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법인택시 행복채움사업의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행복채움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중 무사고 장기성실근무자에게 매월 5만원씩 연 6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에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처한 법

인택시 운전원들을 위해 자격요건을 기존 1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해 지난해 340명보다 50%정도 증가한 총 5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남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편리한 이용을 위해 애쓰는 택시 운전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며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확대 추진

평가비용 최대 3천만원

인증수수료 1천만원까지 지원

광주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민간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해 시민들이 지진안전 시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을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는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

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내진보강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기관에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광주시는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1000만원)를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인증수수료는 지난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방식도 기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절차 완료 후 일괄 비용 지급하던 방식

에서 내진성능평가 완료 후 평가비용은 선지급, 인증완료 후 인증비용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 올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원시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 감면제도도 도입해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으로 총 1억 2050만원을 랜드피아 오피스텔 등 5곳에 지원했다.

인증평가 후 보조금 신청은 2월1일부터 올해 말까지 인증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시자연재난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미세먼지 잡는 ‘시민 환경감시단’ 떴다

계절관리제 기간 시민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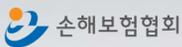
2월 1일부터 23명 감시·홍보활동

광주시는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높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2월1일부터 23명이 참여하는 환경감시단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상시점검 및 자동차 공회전 단속 등 적극적인 감시

와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2~3인 1조로 지역별로 나눠 시 전역에서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장치 준수여부 감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지원 ▲미세먼지 배출방지 시민홍보 활동 등을 하게 된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점관리도로 지정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점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관리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사업도 추진중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